

# 뭣 “역점사업 줄속?... 자신있어” “명태균 논란, 허무맹랑”

(오세훈 서울시장)

##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 한강버스, ‘전시성’ 프로젝트 비판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 지적도 뭣, 명태균 질문에 “고소장 써놔”



오세훈 서울시장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장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5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장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한강 리버버스,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줄속 추진 논란이 불거진 시 역점 사업의 문제점과 선거 브로커인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줄속 결정 과정 ▲교통수단으로서의 무용성 ▲사업 추진 주체의 문제를 근거로 한강버스 사업이 전시성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리버버스라는 게 수백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구상에 서부터 추진까지 불과 2달밖에 안 걸렸

다”면서 “(오 시장이) 유럽 출장에서 지시했는데 곧바로 두 달 만에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용역 발주도 두 달 만에 구성됐다”며 준비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저는 줄속이 아니라 신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한강 수상버스가 당초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위해 대안 교통수단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애초 제안했던 내용이 전부 사라지고 서울 마곡~잠실로 노선이 축소된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이 반대했다”고 해명하자 윤 의원은 “그걸 김포 국회의원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야당은 한강 수상버스는 접근성이 부족해 대중교통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리버버스는 7개 선착장이 있는데 대중교통부터 선착장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0~20분이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 “SH공사가 사업 추진을 한다는 자체에 많은 시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만약에 한다면 서울교통공사가 해야 될 일을 SH공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부분

이 석연치 않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내년 3월부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안전하게 이 사업이 시작되면 아마 이르면 2025년 여름, 그리고 내년에도 다시들이 자리에 오실 텐데 그때쯤이면 리버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행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과 관련해 야당은 ▲긴 이동시간 ▲쉼터 미비 ▲부실한 임금체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건 문자 그대로 시범 사업이다”며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본 사업을 하지 왜 시범 사업을 하겠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정치권에 풍파를 일으킨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오 시장과

의 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윤건영 의원은 “명태균씨로 난리가 아니다. 어제도 메시지를 냈다. 시장님께 ‘자신있냐, 그만해라.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그만둬라.’라고 듣기 민망한 얘기를 했다”면서 “심지어 시장님께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까지 인터뷰를 했다. 그런 사실이 있냐”고 따졌다.

오 시장은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니고,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 사안도 아니어서 답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답변을 원하니 드린다...”이라고 입을 뗐다.

윤 의원이 재빨리 말을 가로채 “명태균씨는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찼다고 주장한다. 동의 안하냐”고 묻자,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다”고 선을 그었다.

‘명태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오 시장은 “고소장은 써놨다”고 답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수능 당일, 출근 늦추고 지하철 증편한다

(11월 14일)

### 교육부, ‘2025수능 지원대책’ 보고 주요 기업체 등에 10시 출근 협조 요청 군사훈련 중단·항공기 이착륙 조정

내달 14일 시행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주요 기업체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도 늘어나고, 듣기평가 때는 항공기 이착륙도 중단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안정적인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만8082명 증

가한 52만2670명이다.

정부는 52만여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해선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따라서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포 사격과 전자 이동 등 군사훈련도 잠시 멈춰진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인 오후 1시10분부터 35까지 25분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자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듣기평가 시간대 이외에도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가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며,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시도에서는 기상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한다. /이현진 기자 ihj@

## 교원 93% “졸업앨범 사진, 딥페이크 우려”

### 교총 ‘딥페이크 실태 설문조사’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사진 도용·합성 피해가 잇따르면서 교원 10명 중 9명은 졸업앨범에 사진 넣기를 우려하고, 10명 중 8명은 학생들과 사진 찍기조차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정보 보호와 딥페이크 범죄 등의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문태희)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의 93.1%는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교원이 느는 추세를 보였다. 교사 72.5%는 ‘점점 줄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전과 변화 없다’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전체 20.4%는 ‘딥페이크’조차도 얼굴 사진(프로필 형태 등)을 ‘모두 넣지 않는다’고 답했고, 17.7%가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고 답했다.

학급 단체사진에서도 담임 교사 사진은 사라지는 추세다. 단체사진에도 담임 교사 사진을 ‘모두 넣지 않는다’는 응답이 14.9%를 차지했으며,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졸업앨범에서 사진 넣기를 꺼리는 것은 비단 교원뿐만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넣기를 꺼리거나 빼기를 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이 45.5%에 달했다. /이현진 기자 ihj@

## 경기도, 체육 활성화 위한 진흥정책 추진

###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구현 박차

경기도가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한 체육진흥정책을 추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체육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갖춘 체육회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체육 활성화에 위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

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을 체육단체에 맡기고 경기도종합체육대의 대회장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했다.

또한 도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확대를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도입했으며 전국 최초로 체육인기회소속 시행, 전국체전 유치 등 의미있는 체육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기회경기관람권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

상으로 도에서 열리는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료를 기존 75% 지원에서 본인 부담 1천원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체육인기회소속은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공통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천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선정된 체육인들은 연내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되고 내년부터는 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한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10월 16일 (수)  
음력 : 9월 14일

수도권 날씨  
13~2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41 | 해질 / 17:53

연천 10/23  
동두천 11/24  
가평 11/24  
파주 9/22  
서울 13/24  
양평 13/24  
인천 13/22  
수원 14/23  
용인 14/23  
평택 14/2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이스라엘, 가자 병원·레바논 민가 맹폭 사상자 속출 /사진 뉴스1
- ▲ 해리스-트럼프, 다시 펜실베이니아 유세... 700만표 걸린 경합주 공략

- ▲ 11월 스물셋 가나...美연준 고위 인사들 “금리인하 속도 조절 필요”
- ▲ 푸틴, 북·러 조약 비준안 러 하원에 제출



- ▲ 미국방부, 中 ‘대만 포위 훈련’에 “무책임·불안정 초래” 비판 /사진 뉴스1
- ▲ 中, 곧 예금금리 0.2~0.25%P 인하... “5경7400조원 대상”